

 협회장 동정

① 태국 타피오카산업 시찰차 해외출장



▲ 왼쪽에서 세 번째 조남조 회장, 네 번째 장원철 부회장, 여섯 번째 김치영 구매본부장.

조남조 회장은 지난 8월 12일부터 16일 까지 본회 장원철 부회장, 김치영 구매본부장과 함께 태국 상무성 초청으로 태국 북부 수코타이 인근의 타피오카 재배지역의 금년도 타피오카 생육상황 및 건조장을 둘러본 후, 태국 타피오카 협회를 비롯한 태국 상무성 산하 대외무역청과 수출진흥청을 방문하여 최근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향후 한·태간 타피오카 교역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② 태국 대외무역청 부청장 일행 예방접견



▲ 오른쪽에서 첫 번째 장원철 부회장, 세 번째 조남조 회장, 네 번째 Mr. Surasak Riangkrul부청장, 맨 끝이 김치영 구매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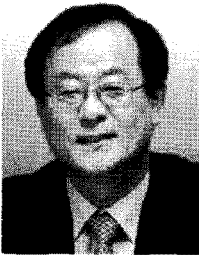
조남조 회장은 지난 8월 22일 태국 상무성 산하 대외무역청의 Mr. Surasak Riangkrul부청장을 비롯한 타피오카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조사단 일행의 예방을 받고 최근 태국의 타피오카 생산 및 가격 동향과 앞으로의 교역확대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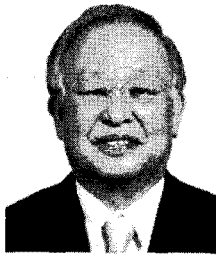
업계동정

● CJ제일제당(주)

대표자 변경



▲ 김철하씨



▲ 손경식씨



▲ 이재현씨

CJ제일제당(주)의 대표자가 지난 7월 13일자로 종전의 김홍창, 손경식, 이재현씨에서 김철하, 손경식, 이재현씨로 변경됐다.

사료사업부문장 변경

동사의 사료사업부문장이 지난 7월 1일자로 종전의 이병하씨에서 유중하씨로 변경됐다.

● 동아원(주)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청 부청장 일행 내방



▲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청 부청장 일행 방문

동아원(주)은 지난 8월 22일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청 부청장을 포함한 방문단 일행을 맞아 타피오카 펠렛의 배합사료 제조공정 현장을 소개하는 등 한국의 사료산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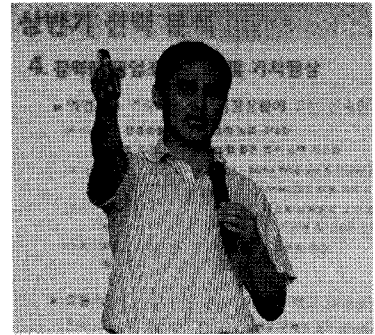


① (주)우성사료

하반기 전체 영업회의 실시



▲ 영업회의의 전경



▲ 표광수 상무

(주)우성사료는 지난 7월 15~16일 양일간 충남 덕산 스파캐슬에서 우성 영업조직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전체 영업회의’를 실시하였다.

올 상반기는 FMD로 인해 축산시장 전체가 힘든 시기였으며, 그 아픔을 치유할 겨를도 없이 축산업의 생존을 위한 비장한 마음으로 하반기를 맞이했다.

우성사료는 지난 상반기 FMD상황 속에서도 위기상황 조기종식을 위해 현장 최 일선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한편 축산업 재건을 위해 축산인 희망 나누기 캠페인 “다시 뛰는 축산인” 활동을 전개해 실의에 빠진 축산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한편 지금도 현장에서 축산업의 재선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 영업조직 전체가 덕승산 정상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우성사료 표광수 상무는 “무더위로 인해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서비스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하절기 더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료내 항생제 첨가 전면 금지 조치에 따라 본격적인 생산성 싸움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우성은 유럽의 축산 선진국과의 기술제휴와 오랜 전통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2년여 전부터 무항생제 제품과 프로그램을 완비하고 시험사육까지 마친 상태에서 하반기를 맞이한 만큼 올바른 현장 적용을 위해 이제는 축종별 전문가들이 나설 때”라고 강조하고 우성사료 영업조직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 (주)카길애그리퓨리나

‘2011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선정

모범적인 윤리경영 인정 받아

(주)카길애그리퓨리나는 지난 7월 13일 포춘코리아가 주관하는 ‘2011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에 선정됐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모범적인 윤리경영 사례를 발굴,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높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양극화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종 시상 기업은 공모를 통해 신청한 기업을 제출한 공적서를 토대로 투명경영·가치경영·혁신경영·인재경영·미래경영 등 5개 분야를 엄밀하게 심사해 최종 9개 기업을 선정하여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우수상 수상을 받고 있는 이보균 대표



▲ 참석한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



카길에그리푸리나는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세계적 리더가 된다’는 비전 하에 △윤리적인 기업 운영 △함께하는 지역사회에 봉사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지원 △다양한 인재 양성 등 좋은 시민으로서 기업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여왔다.

이보균 사장은 “1967년 창립 이래 꾸준히 함께 하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번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수상은 지난 반세기의 노력을 인정받는 것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앞으로도 윤리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주)이지바이오

닭고기 전문업체인 마니커 인수

(주)이지바이오가 닭고기 전문 업체인 마니커를 인수했다.

이지바이오는 지난 6월 16일 사업다각화를 위해 마니커 최대 주주인 한형석 전회장으로 부터 마니커 주식 940만5천300주(20.01%)를 348억원에 인수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 하림그룹

미국 닭고기 가공업체 Allen Family Foods사 인수

국내 최대의 축산전문기업인 하림그룹이 미국내 19위 닭고기 업체를 인수해 닭고기 산업의 본고장에 진출하게 됐다.

하림그룹은 지난 7월 29일 오전(현지시간 28일) 미 동북부 델라웨어(Delaware)주 월밍턴(Wilmington)시 소재 파산법원의 청문회에서 알렌패밀리푸즈(Allen Family Foods)사의 자산 인찰 결과를 최종 승인받았다.

하림은 이에 앞서 27일 오전(현지시간 26일) 현지에서 열린 이 회사의 자산 경매입찰에 참여, 주요 닭고기 생산시설 및 자산을 일괄 인수하는 우선매수권을 확보했었다.

동사는 알렌사의 인수를 통해 미국 현지에서 직접 경영에 나설 계획이어서 우리나라 축산 식품기업이 미 본토에서 벌이는 첫 글로벌 비즈니스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수 경영을 위한 투자액을 최대 1억2천만불로 예상하고 있어 우리나라 축산식품기업의 미국 투자액으로는 사상 최고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미국 닭고기 산업 진출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단백질 식품(육류)에 대한 해외시장까지 확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평가다.

하림은 미국 현지에 ‘하림USA (Harim USA INC.)’를 설립했으며, 하림USA가 알렌의 자산 인수 및 경영을 맡게 된다. 이번 경매입찰을 통한 1차 자산인수에만 4,800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1차 인수작업으로 알렌사의 본사 건물, 부화장 2개, 도계가공공장 2개, 사료공장 2개, 렌더링공장 1개, 사육농장 400여만평을 확보한데 이어 실사를 거쳐 재고자산을 추가 인수하고 설비개선 등에 추가 투자하여 직접 경영하게 된다.

미 동부 Delaware주 Seaford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알렌사는 1919년 부화업으로 출발해 92년의 역사를 가진 닭고기 계열화 업체로 2010년말 현재 미국내 업계 순위 19위(도계능력 연간 1억수대형닭, 도계육 생산능력 연간 22만톤)였다. 지난해 약 4억불의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미국 경제의 불황과 시장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지난 6월 현지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었다.

하림은 알렌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향후 3년내 연매출 10억불 규모의 회사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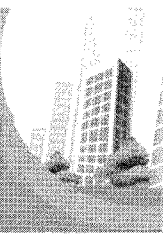
하림그룹 김홍국회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는 구조적인 식량부족 지역으로 식량자원이 남아도는 남북 아메리카, 즉 캐나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미국에 기반을 둔 식품분야의 글로벌 비즈니스는 잠재력과 매력이 크다”며, 미국 진출을 계기로 글로벌 경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닭고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 본토에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은 시기적절하고 좋은 기회”라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Agri-business가 세계에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육계부문 삼장통합경영으로 유명한 하림그룹은 닭고기 뿐 아니라 양돈 및 브랜드 돈육, 한우고급육 유통, 사료, 농수산물 전문 홈쇼핑, 동물약품 등 단백질 식품 전 분야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 지난해 그룹 전체 매출 3조 5천억원을 기록했다.

2007년 ‘글로벌 생산성 1위’라는 그룹 비전을 선포하고,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사료, 곡물유통 등 10개의 해외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글로벌 경영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이번 인수과정에는 농수축산 식품산업의 융복합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투자자문회사인 JKL 파트너스(사장 이성철)가 참여했다.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초대 본부장에 서울대 박용호 교수 취임



박용호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8월 18일 초대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에 취임했다.

기존의 3개 농축수산물 검역·검사 기관이 통합돼 출범한 검역검사본부의 초대 기관장으로 취임한 박 본부장은 출범 초기의 혼란과 어려움을 기관 초석을 다지는 동력으로 승화시키자고 강조해 큰 호응을 받았다.

박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통합 출범의 취지를 살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검역검사본부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달라”며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행정, 창의적인 마인드와 우수한 연구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검역검사본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임 박 본부장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대학원에서 수의미생물학 박사과정을 밟았으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을 지낸 바 있다.

● **CJ제일제당(주)**

금보육종과 종돈합작사업 협약 체결

CJ제일제당(주) 사료사업부문(부문장 유종하)과 한국형 종돈 회사인 금보육종(대표 장성훈)이 지난 7월 29일 CJ제일제당 빌딩에서 종돈합작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병하 돈돈팜 대표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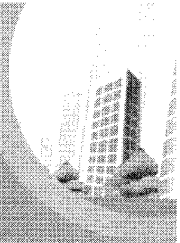
GGP 사업의 합작을 통해 대한민국 양돈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방침이다.

양사는 금보육종의 ‘금보’와 CJ사료에서 양돈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돈돈팜’의 영문약자를 따 ‘금보DDF’라는 신설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장성훈 금보육종 대표는 “GGP사업은 까다로운 위생관리와 유전자 갱신 등 육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분야로 산업에 대한 각별한 사명감이 요구된다”면서 “CJ와의 합작을 통해 우수유전자를 생산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30년 종돈업 외길 인생의 노하우를 생산현장에 쏟아 최고의 종돈을 공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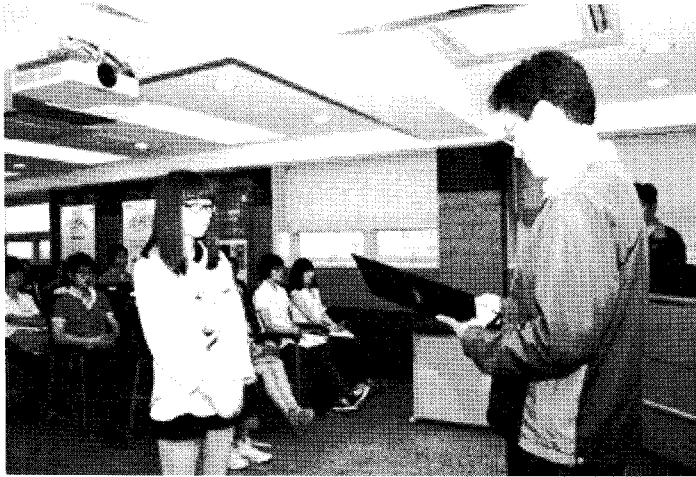
유종하 CJ제일제당 사료사업부문장은 “CJ사료는 양돈산업에 있어서 종돈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돈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해왔다”며 “지난해 10월 종돈합작사업을 통한 우수유전자 확보를 주요전략으로 확정하고 종돈의 유전력, 방역수준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금보육종이 최상의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본 협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사는 ‘대한민국 양돈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자’고 결의했다.



● (주)선진

구제역 피해농가 대학생 장학금 전달



(주)선진은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의 대학생과 학부모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28일 둔촌동 사옥에서 1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선진은 구제역 피해 농가의 고통을 분담하고 축산농가 대학생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라는 장학금 캠페인을 지난 두 달 간 진행했고 사연 공모를 통해 선발된 61명의 대학생들에게 이날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범권 선진 대표이사는 “구제역으로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걸 보고 축산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면서 “이런 와중에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고 꿈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고 싶어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캠페인에는 2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응모했고 최고 6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는 ‘꿈을 향한 열정상’ 수상자는 송실대 민경혜 학생이 차지했다.

또 ‘도전하는 열정상(300만원)’ 10명과 ‘실천하는 열정상(150만원)’ 50명 등 총 61명에게 1억1100만원의 장학금이 이달 중 지급된다. 